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고등학교 도서관의 협력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

- 서울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gh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Using Human Library: Case of S Girls' High School Library in Seoul

조 미 아 (Miah Cho)**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 협력 수업 운영 사례
4.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여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모두를 위한 월경권, 세대공감 메모로, 임신과 출산, 장애인 인식개선의 5개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휴먼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몰입하게 되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휴먼북으로 참여해 준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서 생각보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다수였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propose desirable education direction for library-assisted instruction that uses human library in school librar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classes that use human library run by the library of S Girls' High School in Seoul. The main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S Girls' High School Library implemented five human library programs in 2019, including improvement of perception on multi-culture, menstruation rights for all, generation-connecting MEMORO project, pregnancy and delivery, and improvement of perception on the disabled. Second,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imagine and immerse while listening to Human Book's story and that it was good to be able to ask questions if they had any. They said that those who acted as Human Book gave realistic advice, which was meaningful giving them a lot to learn. Some students replied that their previously negative perception turned positive.

키워드: 휴먼 라이브러리, 리빙 라이브러리, 학교도서관, S여고, 휴먼북, 사람 책, 사서교사, 도서관 협력수업
Human Library, Living Library, School Library, S Girls' High School, Human Book, School Librarian, Teacher Librarian, Library-Assisted Instruction

---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iah100@naver.com / ISNI 0000 0004 6104 5034)
논문접수일자: 2020년 11월 2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1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5-26,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4.005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에 국회도서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가 처음 시도된 이후, 2012년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상설화된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대학교,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덴마크에서 '사람을 책으로 빌려준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휴먼라이브러리 운동은 2003년 유럽평의회의 '인권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정되면서 그 보폭을 넓혔다. 방식은 다양하다. 대규모 뮤직페스티벌이나 북페어의 부대행사로 열리기도 하고,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일상적인 사업이 되기도 한다(한겨레21 2014).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되는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주로 진로 분야에 한정되거나 교육청의 협력으로 일정 기간에 사람 책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책을 빌리는 것으로, 독자들이 읽고 싶은 사람 책을 선택해 저자 혹은 분야별 전문가 등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경기도 용인교육청이 수원, 용인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과 연계해 건축가, 웹툰 작가, 랩퍼, 북뮤지션, 큐레이터와 역사・문학・철학・과학 등 분야별 저명 작가들을 사람 책으로 37교에 지원하였다(경기일보 2019).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은 학습태도, 정보활용능력, 학습습관 등의 요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양소라 2010, 99-100).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수-학습과정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 담당 교사들은 주로 교양 함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하거나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김민자 2010, 83).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는 수업에 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에의 협력수업은 정착되지 않은 편이다.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수업계획을 구안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 교사와 사서교사가 교수계획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이덕주, 조미아 2012, 232). 그러므로 교과교사들에게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와의 협력의 유용성을 이해시키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새로운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정책에서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는 학교 교육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생의 자율성을 위

www.kci.go.kr

한 혁신교육 모델인 마을결합형학교를 강조하고 있다. 마을결합형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협업하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상생을 이루는 데에 목표가 있다(교육부 2019). 이와 같은 수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관과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사서교사의 정보 중계자로서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에 위치한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수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업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휴먼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협력수업과 연계한 지역 사회 주민의 휴먼북 활동에 초점을 두고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S여자고등학교의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현황 및 운영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S여자고등학교(이하 S여고) 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자료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S여고 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협력수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의 사례 및 운영 현황은 S여고 사서교사가 제공한 운영자료, 수업계획서, 소감문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2019년에 운영한 '마을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성교육'과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수업을 참관하였다. 사람 책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수업내용을 관찰하고 녹음하였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수업 후에 휴먼북(사람 책), 학생, 사서교사, 교과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후에 녹음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휴먼 라이브러리의 개념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로 불리기도 하며 휴먼북(사람 책)을 활용한 도서관을 의미한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를 통하여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등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혹은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청년 NGO인 '폭력을 멈춰라(Stop Volden)'를 통해 덴마크에서 2000년 6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활동가들은 폭력을 멈추게 할 방법을 구상하던 중, 대화를 통해 생각의 차이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얻으

www.kci.go.kr

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Human Library 2020). 휴먼라이브러리는 덴마크의 최대 뮤직페스티벌인 '로스킬레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의 부대행사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이벤트는 4일 동안 하루 8시간 동안 열렸으며 5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로 시작되었다. 이 콘서트 참석자들은 그들의 삶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해주기 위해 책 사람으로 초대되어 그들은 출신 국가, 생활 방식, 그들의 신념 등 삶의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Kinsley 2009). 1,000명 이상의 독자들에게 고정 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한 광범위한 휴먼북은 책, 사서, 조직자 및 독자에게 휴먼 라이브러리의 수용과 영향에 놀라게 만들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현재 6개 대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80개국 이상에서 활동을 주최하거나 참여하고 있다(Human Library 2020).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 책은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진 편견 및 고정관념과 맞닥뜨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고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람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들의 질문도 받는다. 또한 사람 책이 독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무형식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람 책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한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주제, 참여자,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저예산과 고효율이다. 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며, 휴먼북도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희망제작소 2014).

우리나라에서 2010년 2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책을 빌리는 사람으로 늘 북적이는 이곳에서 이날만은 이색적인 도서 대출 상황이 벌어졌다.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준 것. 행사 이름은 '리빙 라이브러리',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리빙 라이브러리의 콘셉트는 간단하다. 도서관은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해준다. 대출 시간은 30분, 독자들은 인터넷에 미리 공개된 도서 목록(사람 목록)에서 읽고 싶은 책(사람)을 고른다. 그리고 그 책(사람)과 마주 앉아 독서(대화)를 한다. 글이 아닌 대화로 인생을 나누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책과 대출자가 되어 만났다. 이날 소개된 책(사람)은 모두 43권이다. 남자 간호사, 여자 소방관, 방송작가, 연극인, 다문화가정,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직업과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제삼아 기꺼이 책이 됐다. '사람 책'은 도서관 책보다 대출 횟수가 유연했다. 3시간 동안 준비된 43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123명이나 된다. 사람과 소통하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책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감흥을 줬다. 상담과 치료의 역할을 겸한 대화는 위로를 주기도, 오해와 편견을 거두기도 했다(한겨레 21 2010).

2.2 도서관 협력수업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www.kci.go.kr

상호 협력하여 수업설계-전개-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상호 협력하여 교육과정간의 중복되는 원리, 공통 이슈,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함으로써 교과교사는 교과 학습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사서교사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이병기 2020, 351-355).

교과교사는 업무와 수업준비의 부담으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에게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과목의 단원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과교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정규직 사서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동등하게 교육과정 계획에 참여한다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도 면에서 부담이 없고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과목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계획하면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양소라 2010, 99-101).

2.3 선행연구

그동안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는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과정, 휴먼라이브러리 사례 분석, 휴먼 라이브러리 참여경험,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황희선(2014)은 대전 지역에서 자발성에 의한 시민주도형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기획 과정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자, 사람책,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진지하게 대화에 몰입하여 마음의 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 편견 이해의 장을 제공하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대면 대화의 방법론적 실천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휴먼라이브러리 사례를 분석한 조찬식(2014)은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성북구의 휴먼라이브러리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성북구의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제시하였다. 성공적인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철저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 탄력적인 운영 통한 관심과 참여의 유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준비과정,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협력강화, 홍보활동의 강화,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도서관문화의 기반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임성관과 조미아(2018)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 독자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해하면서 본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 책'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시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www.kci.go.kr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에서의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나원과 오동근(2015)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 살펴보고 대구광역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고 도서관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였다.

휴먼 라이브러리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람 책 경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강보미(2019)는 휴먼라이브러리를 경험한 9명의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휴먼라이브러리 참여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양육미혼모는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사람 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람 책으로 활동하는 순간까지 지속해서 변화했다. 이들은 양육미혼모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장점을 재확인하였고, '사람 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하였다. 사람 책으로 활동하기 전 준비과정과 당사자 모임,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이루어진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미혼모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을 개선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성관(2017)은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경기도 교육청 사람 책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 및 독자 수, 사람 책의 숫자는 계속 확장되었고, 책 활동을 통해 참여 독자들은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남효진(2017)은 초등학교에서 접목할 수 있는 통합독서활동으로서의 리빙 라이브러리를 연구하여 이를 학교, 학급 및 가정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주제・상황알기(활동배경과 주제파악하기)-삶 읽기(사람 책 읽기)-음미하기(사람 책과 교류하기)-성찰하기(사람 책 가치 찾기)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리빙 라이브러리, 책달력 만들기를 활용한 리빙 라이브러리, 책이야기꾼을 통한 리빙 라이브러리 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이덕주(2015)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메모로 프로젝트 실천 사례를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과 사회문화 교과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S여고 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의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3.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 협력 수업 운영 사례

S여고 도서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마을활동가들과 협력하여 학교의 특별활동에 마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에 마을단체가 학교 성교육 활

www.kci.go.kr

동 등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수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S여고는 서울시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사업과 서울시 교육청 마을결합형 학교 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휴먼북(사람 책)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S여고 사서교사에 의하면, 교과수업 목표전달이란 측면에서 교과서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수업이나 참고자료를 찾아보는 것보다 실경험자나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생활 적용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마을결합형 학교를 진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특성상 방과 후 교육과정보다는 일과 중의 정규 교육과정에 결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3.1 운영 현황

S여고에서 2019년까지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협력수업은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언니와의 수다',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마을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성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5가지가 운영되었다. 2020년 노동인권교육까지 추가되어 총 6개의 도서관협력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에 운영되었던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 수업의 주요 특징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의 협력교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어, 한문이다. 제2외국어 교과과정에 문화(역사, 환경, 풍습)을 체험적으로 지도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수업방식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외국 출신의 이주여성을 휴먼북으로 학교로 초대한다. 학생 4~5명씩 휴먼북에 배정되어 이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각 나라의 전통 옷을 입어보거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한다. 또한 휴먼북인 이주여성과 학생이 함께 어울려 전통 춤을 배우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협력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주여성들의 모임인 생각나무 BB센터에서 휴먼북을 지원받고 있다.

〈표 1〉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수업명	협력 교과	교과 과정 관련성	휴먼북	수업 방식	대상 학년	협력기관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중국어 한문	문화(역사, 환경, 풍습)를 체험적으로 지도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	외국출신의 이주 여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외국 출신의 이주여성 강사분들이 조별로 강의 진행. 이주여성 강사진들이 자국문화 역사 설명후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며 진행함	2학년	생각나무 BB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주여성들의 모임)

www.kci.go.kr

휴먼북인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휴먼 라이브러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학습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감문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소감문의 내용은 오늘 배우고 체험한 내용 중 재미있는 것, 새롭게 알거나 깨달은 것, 소감 한 마디 총 3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

학생의 소감문에서는 음악을 연주해서 재미있었고, 모자, 전통의상에 대한 체험 이야기, 나라의 계절적인 특징 등이 신기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학생들이 새롭게 알거나 깨달은 것은 나라별 동물의 우는 소리가 다르다는 점, 학년제, 농사, 유행하는 식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휴먼북으로 온 이주여성들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재밌었고, 이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선생님이 음악을 연주해주셨다. 어떤 기타(놈부라)로 연주해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곡이었다. 그리고 집도 만들어 보았는데 집은 만들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다 못 만들었다. 그리고 모자를 써보았는데 털도 많이 있어서 따뜻했고 머리가 매우 작아서 잘 안들어 갔다.

오늘 처음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배워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한 나라가 계절이 다 다른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전통의상이 너무 여리여리해서 예뻤다.

카자흐스탄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6학년인데 카자흐스탄은 1~12학년까지 있는 게 신기했고, 집의 형태도 배웠고 인사말이 무엇인지 배웠다.

한 나라 계절이 다 다른 것과 일 년에 농사를 3번이나 짓는 것이 신기했다. 베트남에 지금 떡볶이가 유행한다는 데 정말 신기하다.

오늘 너무 새로운 걸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다 설명해주셔서 재밌었고, 이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고 도움이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더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알지 못한 게 있어서 아쉽다.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싶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친절하고 귀여우신 선생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베트남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다. 전문의상도 입어보고 베트남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잘 알게 되었다.

다문화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지요. 엄청난 질과 양을 갖춘 마을 이주여성 강사진들이 투입되어 작은 모둠별로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 아이들이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학교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업이 마을공동체의 도움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요. (사서교사)

3.1.2 임신출산 육아경험 나누기 '언니와의 수다'

'언니와의 수다'의 협력교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가정이다. 교과과정에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업 방식은 임신 출산 육아 경험 있는 젊은 엄마를 휴먼북으로 학교로 초대한다. 학생 4~5명

www.kci.go.kr

〈표 2〉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 '언니와의 수다'

수업명	협력 교과	교과 과정 관련성	휴먼북	수업 방식	대상 학년	협력기관
언니와의 수다	기술・가정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	임신 출산 육아 경험 있는 엄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수업. 임신 출산 육아 경험 있는 휴먼북 초청하여 체험적인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하며 진행함	1학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모임 졸업생

씩 휴먼북에 배정되어 젊은 엄마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협력기관인 마을공동체와 S여고를 졸업한 선배 언니들 중에서 휴먼북을 지원받고 있다.

S여고에서는 2015년부터 해마다 마을의 출산, 육아에 경험 있는 언니들을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도서관에 초대하여 양성평등문제, 저출산 문제 등에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이 나누며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를 대비한 체험형 교육으로 기술・가정과 교과과정의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 단원의 생생한 경험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 휴먼북은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육아에 대한 체험적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수업 진행은 다음 〈표 3〉과 같이 총 3차시로 이루어지며 2차시에 휴먼북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 학생들 마음으로 다가가고 진지한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기획된 수업은 평소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과 연계된 인간관계가 총동원됩니다. 평소 학교와 교류를 하던 망우동의 〈마을과아이들〉이란 마을공동체 회원들, 중랑구의 공동육아모임 〈배꼽친구들〉, 또 S여고 졸업생 중에 주로 동아리 회원들이었던 졸업생들 중에 연락이 닿고 기꺼이 후배들을 위해 달려올 수 있는 언니들이 총출동하지요. (사서교사)

휴먼 라이브러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휴먼북인 언니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수행평가를 위한 소감문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소감문의 내용은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경험(임신 중의 생활, 진통, 분만과정, 장소), 신생아, 영아를 돌보는 방법(주로 돌보는 사람, 돌보는 시간, 모유수유 여부), 출산과 양육을 통한 경험의 행복한 점과 어려운 점, 휴먼북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 총 5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

〈표 3〉 기술・가정과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 단원 차시별 수업 운영 내용

- 1차시: 교과서로 이론적 진행 설명, '언니와의 수다' 때 구체적 질문 정하기
- 2차시: 모둠별로 언니 만나서 이야기 경청하고 질문하고 소감문 적기
- 3차시: 개인 소감문 정리하여 제출하고 모둠별로 나누기

www.kci.go.kr

학생의 소감문에서는 임신, 출산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과정, 한 번 애들 낳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은 아름답지 않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으며, 아이를 낳고 그 낳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휴먼 라이브러리 수업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자연분만법에 대한 생각,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언니와의 수다' 활동지의 사례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언니와의 수다' 수행 평가 활동지 제출 사례

대단원	Ⅰ. 인간발달과 가족	학 번	
중단원	1. 사랑과 결혼, 그리고 부모됨	이 름	
소단원	3)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	언니 성함	

1. 언니의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경험을 들려주세요.(임신 중의 생활, 진통, 분만과정, 장소)	
6살짜리 첫째 딸과 2살짜리 둘째아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둘 다 자연분만으로 낳으셨다. 결혼 후 아기를 가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가지지 못하셨고 인공수정 같은 것도 시도해보았다. 안타깝게도 중간에 유산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장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셨고, 출산을 하는데 무려 18시간이 걸리셨다고 한다. 아기가 나오기 4시간 전부터 진통을 아주 심하게 느끼셨다고 하셨다. 분만 중에는 여러 가지 분만이 있는데 수중분만처럼 특별한 분만을 못해봐서 아쉽다고 하셨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하셨고, 출산을 할 때 남편의 손을 잡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임신과 출산 중 의지할 수 있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다.	
2. 신생아, 영아를 어떻게 돌보셨나요?(주로 돌보는 사람, 돌보는 시간, 모유수유 여부)	
신생아 때는 하루 종일 아기만 보고, 주로 본인이 돌봤다. 첫째 딸의 경우에는 예민한 성격이고 우유를 조금 가리는 체질이어서 평균보다 더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했다. 둘째 아들은 가리지 않고 어떤 우유든 잘 먹기 때문에 모유를 먹고 바로 분유를 먹이셨다고 한다.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갈 시기가 되었을 때, 요즘 유치원은 너무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고 어린이집이 조금 더 보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셨다.	
3. 출산과 양육을 통한 경험을 통해 행복한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형제와는 다른 느낌의 가족이 생긴다는 점이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경향도 있고, 가족관이 뚜렷해지며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	
4. 이것이 궁금해요(질문 한 가지)	
〈질문내용〉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 중에 가장 힘들때가 언제인가요?	〈답변내용〉 임신과 출산보다 양육이 더 힘들다. 임신을 했을 때도 힘들고 출산도 많이 힘들지만 임신과 출산에 비해 양육은 시간이 훨씬 길고 몸이 훨씬 힘들다.
5.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느낀 점)	
나는 원래부터 자녀를 낳고 싶었고, 친자식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언니와 얘기를 하니까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나 엄마보다 오히려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세세한 사실들까지 알려주시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화를 하고 나니 결혼과 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 더욱 잘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언니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은 반면에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서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고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www.kci.go.kr

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통을 원래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과정이고 정말 뜻 깊은 과정과 정말 뜻 깊은 결과를 내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은 아름답지 않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선물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걸 포기해야 했다.

아주머니께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매우 행복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소개해 주시는데 저렇게 행복할까? 하면서 한 번 애를 낳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낳고, 그 낳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나는 수유패드를 끼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당황했다. 수유패드와 또 압축기 같은 것으로 젖을 짜야 한다는 것 또한 신기했다.

가정시간에도 여러 분만법을 배웠지만 직접 경험자의 후기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보니 정말 자연분만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를 낳기 위해 고생하셨을 엄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0개월 동안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셨을 엄마가 보고 싶어졌고 평소에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감사했다. 또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3.1.3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교육 '메모로'의 협력교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문화, 생활윤리, 가정・기술과이다. 사회문화의 교과과정에는 '고령화 사회', 생활윤리의 교과과정에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기술가정의 교과과정에는 '가족단원: 어르신들과 대화, 소통'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생활윤리 교과와 협력수업을 할 때에는 대상학년이 2학년이었는데, 최근 3년간 기술・가정과와 하고 있고 대상은 1학년이다. 수업 방식은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을 휴먼북으로 학교로 초대한다.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5분 이내로 편집에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기에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서교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휴먼북의 발굴과 연결을 위해서 학교 근처 아파트의 노인회, 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 동네 도서관의 노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고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이덕주 2015, 44). 현재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인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휴먼북을 지원받고 있다.

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서교사는 고교교과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창의적재량 활동에 들어가는 진로교육, 독서교육,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세대공감 교육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했다. 즉 노인세대가 갖고 있는 진

www.kci.go.kr

〈표 5〉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수업명	협력 교과	교과 과정 관련성	휴먼북	수업 방식	대상 학년	협력기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사회문화 생활윤리 기술・가정	고령화사회, 어르신들과 대화, 소통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5분 이내로 편집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음	1학년	원광사회복지관

〈표 6〉 세대공감교육 '메모로'의 휴먼북 프로필 사례

이름	프로필
홍**	*42년생 *그 시대의 문화생활 및 정서에 대해서 공유 *출장뷔페 요리사로 수십 년간의 경력이 있음 *양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양장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 *6.25를 겪은 세대
최**	*36년생 *국민학교 4학년 때 광복을 겪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음 *대전 출신 *6.25는 중학교 3학년 때 겪음. 그때 서울로 이사를 했음 *폐결핵을 앓으셔서 남편분이 간호를 해주셨음(남편과 사별한지는 3년째임) *현재 보청기를 착용중임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 구구팔팔(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 이용중
정**	*43년생 *명동 성당의 성가대 및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 *22세부터 피아노 학원 운영(40년간)

로교육 역량과 기존 동아리 등에서 하고 있던 봉사활동 등을 단순 시혜적 활동이 아니라 노인세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것이다.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인성교육의 핵심역량(효, 예, 존중, 배려, 소통, 협력)이 함께 길러지도록 개발해야만 한다(이덕주 2015, 42).

2019년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수업에 휴먼북으로 오신 어르신은 총 15분이신데 그 분들 중 세 분의 프로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휴먼북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연세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도 각자 달랐다.

수업 진행은 2차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휴먼북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사서교사는 휴먼 라이브러리 수업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께 이야기 하실 때에는 3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자식자랑, 정치, 종교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술・가정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라고 당부하였다.

www.kci.go.kr

이 수업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학교까지 수업시간에 맞추어 원광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우리 학교에 모시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이렇게 우리 지역 마을 분들이 여러분 수업에 신경을 쓰고 계세요. 오늘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책읽어주는 할머니, 연극하는 할머니, 여러분 선배들과 메모로 활동을 했던 할머니도 계세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록하길 바랍니다. (사서교사)

녹음은 핸드폰 2개로 하고, 배터리를 2개 가지고 녹음해요. 5분 정도로 편집을 할 거에요. 하얀 종이를 준 것을 따로 적도록 해요. (기술・가정 교사)

학생들은 조별로 미리 준비해 온 질문을 하였는데 6.25 때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으며, 질문 내용은 조별 구성원의 관심사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별로 질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메모로 활동이 끝난 후에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응은 '이야기의 생생함으로 인한 몰입'이었다. 학생들은 어르신 말씀을 직접 듣다보니 책과는 달리 생생하게 느껴져서 상상하면서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으며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책은 좀 지루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생생함이 있어서 좋아요.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하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대답 듣는 것도 좋고 이번 시간이 뜻 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더 생생하게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책으로 봤으면 그냥 일반 다른 책들처럼 역사책 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 들을 때 상상이 되어서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에도 남고, 625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성이 있고 더 믿을만한 이야기이고 집중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머니께 직접 여쭈어보고 들으니까 이런 우리의 지역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받아들이는 게 쉬웠고 생생했어요.

〈표 7〉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의 예

A조	B조
- 6.25때 이야기 - 어릴 때 자주 먹던 음식과 그 이유 - 어릴 때 못했던 것 중에 지금 하고 싶은 것 - 예전과 현재의 큰 차이점	- 6.25때 상황 - S여고 설립하기 전 모습 - 예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 학교생활(학창생활)에서 좋았던 점 - 21세기 조언

www.kci.go.kr

교실에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뷰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많았고요. 책으로 보기만 하면 지루하고 졸리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는 느낌보다는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뭔가 수업 한다,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흥미로움'이었다. 이론 수업을 할 때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어르신들과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더 재미있고 좋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휴먼북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그들과 어르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유사한 점에서 매우 즐거워했다.

가정 선생님이 메모로 수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업할 때랑, 전에 선배들이 만든 영상을 들었을 때는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요. 어르신과 실제 접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할머니의 학창시절이 흥미로웠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버스 많이 안다니는 것, 집으로 바로 가는 것. 우리는 뭐 먹고 가든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놀라웠던 것은요. 고등학교 3년에 딱 한 번 수학여행을 간 것요. 우리는 수련회를 매년 가거든요. 호떡 이야기요. 수업 중간에 담 넘어서 호떡 사러 갔다 왔던 일요, 우리도 쉬는 시간에 매점을 뛰어다니거든요. 그게 비슷했어요.

세 번째 반응은 '현실적인 조언에 따른 깨달음'이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고난을 겪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셨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힐링을 느꼈으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음식을 앞으로는 남기지 않겠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생각보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이 있어요. 저희가 살아온 똑같은 곳에서 먼저 살아온 분이니까 조언을 들으니까 참고할 것도 많은 것,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항상 매일 학교에 와서 딱딱한 분위기에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좀 힘든 시간의 반복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현실적인 배움을 받은 것 같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난을 겪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게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음식이 소중했는데 지금은 음식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먹기 싫으면 남겼는데 앞으로는 잘 먹을게요.

살면서 이제는 봉사를 살면서 많이 해야 한다는

www.kci.go.kr

것을 느꼈어요.

네 번째 반응은 도서관 수업을 할 때의 장점인 '친구들과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기쁨'이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다보니까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을 할 때도 다들 앞에만 보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과 마주보면서 하니까요.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 같고, 책을 볼 때는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은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3.1.4 마을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성교육 '모두를 위한 월경권'

S여고에서는 중랑구의 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과 2017년부터 해마다 체험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1학년은 기술・가정 시간, 2학년은 자율시간에 '월경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을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성교육'의 협력교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가정과 시간과 자율시간에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에 의무화된 성교육이지만 이 시간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더 확보한 시간이었다. 수업 방식은 휴먼북인 여성 환경연대 회원이 월경통 등 성교육을 반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 성교육 관련 물품(생리대, 생리컵 등)들을 만지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협력기관은 중랑구 여성 환경연대 '초록상상'이다. 성교육 '모두를 위한 월경권' 강의계획안 사례는 다음 〈표 9〉와 같다.

휴먼북으로 참여하러 온 환경연대 회원은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월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양한 월경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희 때는 월경에 대한 것을 학교에 생리대 업체가 와서 일회용 생리대 위주로 사용법 정도로 이야기 하고, 엄마는 그것을 빨리 잘 감추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었죠.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알면 안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학생들이 월경통이 굉장히 심해요.

〈표 8〉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 성교육

수업명	협력 교과	교과 과정 관련성	휴먼북	수업 방식	대상 학년	협력기관
마을 여성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성교육 '월경권'	기술・가정 자율 시간	의무화된 성교육	여성 환경연대 초록상상회원	월경통 등 성교육을 반별 강의형으로 진행함. 실제 성교육 관련 물품(생리대, 생리컵 등)들을 만지고 체험하는 교육	1학년 2학년	중랑구 여성 환경연대 '초록상상'

www.kci.go.kr

〈표 9〉 성교육 '모두를 위한 월경권' 강의계획안 사례

<table>
<tr><td colspan="4">강 의 계 획 안</td><td>대상</td><td colspan="2">1학년 2학년 26명 내외</td></tr>
<tr><td colspan="4"></td><td>시간</td><td colspan="2">50분</td></tr>
<tr><td colspan="2">활동 제목</td><td colspan="5">모두를 위한 월경권</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5">1. 월경을 터부시하는 사회문화를 살펴보고, 여성의 권리로서 월경권이 있음을 알고,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다.
2. 다양한 월경용품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 rowspan="2">준비물</td><td>강사</td><td colspan="4">PPT, USB, 5종 월경용품</td></tr>
<tr><td>기관</td><td colspan="4">2절지(모둠당 1장), 유성매직 1세트(모둠당)</td></tr>
<tr><td rowspan="5">활동 내용</td><td>도입</td><td colspan="2">1. 월경을 말하다</td><td colspan="2">- 여성의 몸이 주기에 따라 배란과 월경을 하며 순환한다.
- 나의 월경통은 어느 정도인가?</td><td>10분</td></tr>
<tr><td rowspan="3">전개</td><td colspan="2">2. 월경을 터부시하는 사회문화 살펴보기</td><td colspan="2">- 생리대 광고를 통해 월경에 대한 사회 문화 알고, 비판하기
: 동영상 보기-스브스뉴스</td><td rowspan="3">30분</td></tr>
<tr><td colspan="2">3. 말하기가 모여 만들어낸 변화들</td><td colspan="2">- 세계 월경의 날
- 월경권에 대한 제도 및 정보
- 일회용생리대 전성분표시제</td></tr>
<tr><td colspan="2">4. 월경용품&선택권</td><td colspan="2">- 건강한 월경용품 선택방법을 알아본다.
- 모둠활동(5인 1모둠)
: 다양한 월경용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월경용품 찾기</td></tr>
<tr><td>마무리</td><td colspan="2">5. 모둠활동 및 발표</td><td colspan="2">발표하고 소감 나누기</td><td>10분</td></tr>
<tr><td colspan="2">평가</td><td colspan="5"></td></tr>
</table>

학생들 중 반 이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통증이 심한 학생이 많은 시점에 월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월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양한 월경용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강사)

월경권 수업이 끝난 후에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응은 '체험을 통한 새롭고 신기함'이었다. 다양한 월경용품을 직접 만져보고 뜯어서 분해를 하니까 새롭고 신기롭다고 응답하였다.

소형 생리대를 뜯어서 분해하니까 신기해요. 되게 재밌어요. 못접했던 것을 접하니까 좋아요.

새로운 물품들을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월경용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책으로만 배우면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는데 더 궁금한 것도 있을 텐데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신기하고요. 이런 교육이 별로 없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본다는 게 되게 좋네요.

두 번째 반응은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월경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숨겨야 한다는 것

www.kci.go.kr

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차별적인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월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월경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숨겨야만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주어야 하는 부분,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 속에서 그날..숨겨야 한다..상큼한 점을 느껴야 한다는 것에서 점차 인식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지나친 성차별적인 광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은 구분할 수 있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

3.1.5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 자율 시간에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과의 관련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이다. 수업 방식은 발달장애인 부모님으로 구성된 '중랑통합학부모회'라는 모임에서 강사훈련을 받은 분들이 와서 일반학생들에게 강연하는 방식 강의형으로 진행하였다. 협력기관은 (사)중랑구통합학부모회이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안 사례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장애인 인식 개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존재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는 반응이 다수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뜻 깊은 시간이었다. 평소에 학교에서 듣던 교육과 다른 느낌이어서 좋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

장애인은 불쌍하게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단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존재일 뿐이다. 앞으로 장애인을 마주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10〉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 장애 인식 개선교육

수업명	협력 교과	교과 과정 관련성	휴먼북	수업 방식	대상 학년	협력기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종교 자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장애인 부모님	장애인 부모님으로 구성된 '중랑통합학부모회'라는 모임에서 강사훈련을 받은 분들이 와서 일반학생들에게 강연하는 방식	1학년 2학년	(사)중랑구통합학부모회

www.kci.go.kr

〈표 11〉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안 사례

주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다름을 존중함	
학습과정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도입	〈 몸 풀기 마음열기 〉 1. 강사소개 2. 인권그림책[중요한 게 달라요] - 칠판 앞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골라서 스티커를 붙인다. - 학생들 보통 부모님, 친구, 집 등을 쓴다.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없다면?"하고 멘트를 하고,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스티커
전개	1차시. 차이 알아보기 동영상 활용해서 교육 진행 〈장애바로알기 그리고 함께하기〉 1) 인권감수성을 알아본다. 2) 다름과 차이를 알아보고 소수자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3) 소수자의 소수자인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장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4) 장애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환경을 바꾸어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이야기 해 본다. 2차시. 유니버설 디자인 알아보기 동영상 활용해서 교육 진행 모둠활동을 통해 장벽없는 마을 디자인, 장애인식개선 표어 등을 발표한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 동영상에 나온 예시 찾아보기 2) 우리 학교, 동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3) 어떤 것들을 만들면(바꾸면) 모두가 편리할지 생각해 보기	동영상 2절지 싸인펜
정리	모든 사람은 서로 같지 않고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모두가 더 편리하고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이 줄었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대할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늘 장애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시선으로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의 사례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에 교과협력수업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모두를 위한 월경권, 세대공감 메모로, 임신과 출산, 장애인 인식개선의 5개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www.kci.go.kr

둘째,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휴먼북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이야기의 생생함으로 인한 몰입, 흥미로움, 현실적인 조언에 따른 깨달음, 친구들과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기쁨,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문화 이주여성, 월경관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기술・가정과와 협력한 수업이 모두를 위한 월경권, 세대 공감 메모로, 임신과 출산 등 3개였다. 기술・가정과와 협력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사서교사는 기술가정과는 한 두 분이 전 학년을 담당해서 협의가 쉽고, 기술・가정과 교사들이 도서관과 오랫동안 협력을 해 와서 서로 신뢰가 쌓여있어서 가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원활한 관계가 도서관 협력수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가정 과목이 실용적인 내용이 많고 마침 휴먼 라이브러리 주제와 연결되는 점들도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자고등학교에서 임신과 출산, 월경권에 대한 주제로 휴먼북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몰입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서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매칭되는 정보원으로 종이 책이나 인터넷 자원만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주민을 휴먼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S여고 도서관의 협력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고 휴먼북으로 마을 주민, 마을 단체, 마을 공동체 등의 지역 사회 주민들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휴먼북으로 활동한 마을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함께 학생을 교육하였다는 자부심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체험적 수업의 기회를 주고,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더 완성도 있게 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휴먼북을 만나도록 함으로써 생생한 체험을 듣고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과정과 마을을 연결하는 S여고 도서관의 협력 수업 사례가 여러 학교로 확대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강보미. 2019.『양육미혼모의 휴먼라이브러리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2019.『경기일보』. 5월 9일. [online] [cited 2020. 9. 19.]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806〉

www.kci.go.kr

[3] 교육부. 2019. 학생의 자율성을 위한 혁신교육 모델, 마을결합형학교. [online] [cited 2020. 10. 10.] 〈https://blog.naver.com/moeblog/221463150841〉

[4] 국회도서관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 개최. 2010.『뉴시스』. 2월 3일. [online] [cited 2020. 9.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073461〉

[5] 김민영, 황인혜. 2015.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집』, 2015(8): 139-142.

[6] 김민자. 2004.『학교도서관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7] 남효진. 2017.『통합독서를 위한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8] 박나원, 오동근. 2015.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015(5): 183-191.

[9] 사람 책'을 빌려드립니다. 2010.『한겨레 21』. 798호. 2월 3일. [online] [cited 2020. 9. 10.]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6734.html〉

[10] 안철수 의원 빌려주세요. 2014.『한겨레 21』. 995호. 1월 16일. [online] [cited 2020. 9. 10.]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6734.html〉

[11] 양소라. 2010.『메타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2] 이덕주, 조미아. 2012. 고등학교 도서관의 협력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 중국어과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31-251.

[13] 이덕주. 2015.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메모로 프로젝트 실천 사례: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과 사회문화 교과 협력수업을 중심으로.『디지틀도서관』, 77: 36-50.

[14] 이병기. 2020.『정보활용교육론』. 대구: 태일사, 2020.

[15] 임성관, 조미아. 2018.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적용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345-368

[16] 임성관. 2017.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현상 분석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53-176.

[17] 조찬식. 2014.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9-28.

[18] 황희선. 2014.『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19] 희망제작소. 2014. [online] [cited 2020. 9. 10.] 〈http://www.makehope.org/2-휴먼라이브러리의-모든-것〉.

[20] Human Library. 2020. [online] [cited 2020. 9. 10.]

www.kci.go.kr

〈https://humanlibrary.org/about/〉.

[21] Kinsley, L. 2009. "Lismore's living library: Connecting communities through conversation."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22(1): 20-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ng, Bo-Mee. 2019.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Unwed Mothers who Participated in Human Library*. M.A. thesis. Soongsil University.

[2] "Kyonggi Central Library of Educatiom, Human book Library Operation." 2019. Kyonggiilbo, May 9. [online] [cited 2020. 9. 19.]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806〉

[3] Ministry of Education. 2019. Innovative education model for student autonomy, village-coupled school. [online] [cited 2020. 10. 10.] 〈https://blog.naver.com/moeblog/221463150841〉

[4] "National Assembly Library, 'Living Library' event held." 2010. NEWSIS, February 3. [online], [cited 2020. 9.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073461〉

[5] Kim, Min-Young and Hwang, In-Hye. 2015.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of the Public Libraries: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Nowon-Gu, Seoul."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5(8): 139-142.

[6] Kim, Min Ja. 2004.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of School Libraries: Focused on the Middle Schools in Kyonggi Region*.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7] Nam, Hyo-Jin. 2017. *A Study on the Living Library Programs for the Integrated Reading*. M.A. thesis. Dong-A University.

[8] Park, Na-Won and Oh, Dong-Geun.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s of the Human Library Program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5): 183-191.

[11] Yang, So Ra. 2010. *Meta-Analysis and Empirical Study on the Educational Excellence of Students through Library-Assisted Instruction*. M.A. thesis. Yonsei University.

[12] Lee, Deokju and Cho, Miah. 2012. "A Case Study on the High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Focused on the Chinese Project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3(3): 231-251.

www.kci.go.kr

[13] Lee, Deokju. 2015. "A Case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roviding for Aging Society: The Collaborative Teaching Between School Librarian and Society & Culture Subject Teacher in Library-Assisted Instruction in Song-gok Girls' High School." *Digital Library*, 77: 36-50.

[15] Lim, Seong-Gwan and Cho, Miah. 2018. "A Study on Application Case Analysis of Human Book Programs to the Library: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9(1): 345-368.

[16] Lim, Seong-Gwan. 2017. "A Study or Analysis of the Phenomenal Experiences with Human Book: Focusing on the Human Book Program at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153-176.

[17] Cho, Chan-Sik. 2014.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5(3): 9-28.

[18] Whang, Hee-Seon. 2014. *A Study on Planning Human Library: Focusing on Identity and Research Methodology of Human Library*. M.A. thesis. Majoring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 The Hope Institute. 2014. [online] [cited 2020. 9. 10.]
〈http://www.makehope.org/2-휴먼라이브러리의-모든-것〉

www.kci.go.kr